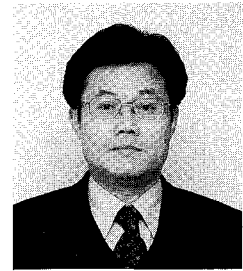


악성질병 방역을 위한 양계업계 체질개선 시급하다



김재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1. 머리말

2000년과 2001년은 우리나라의 가축질병 방역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하여 온 축산업계가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2001년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였고, 돼지콜레라는 28개월 이상 국내 발생이 없어 대외적으로 청정국 선포를 하는 쾌거를 일구어 내었다.

그러나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한 탓에 상대적으로 양계질병 방역과 홍보, 방역요령 위반시 법규 적용이 미흡하였고, 그 사이 가금티푸스와 같이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올해에 양계업계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2년째에 접어 든 뉴캐슬병 근절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가금티푸스를 위시한 살모

넬라병의 방역, 발생 최소화 방안 수립 등이 될 것이며, 후진형 양계산업에서 탈피하는 일도 우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양계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양계업계 질병 방역의 현주소

필자가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으로 근무하던 작년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위한 방역점검의 일환으로 한우농가, 젓소농가, 양돈농가 등에 대하여 수 없이 둘러 보았는데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지만 근절사업 실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방역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확연히 개선되었고 차단방역 조치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년만에 조류질병과로 복귀하여 양계업계를 대하고 보니 우리의 양계산업은 질

병 방역면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꼭 같다는 느낌이 든다.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난계대전염병에 감염된 채 운영되고 있는 일부 종계장의 형편없는 계군관리,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병아리인 줄 알면서 혈 값에 파는 일부 부화장의 위험한 상흔, 병아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겨자먹기로 그런 병아리를 사서 키우는 양계농가, 이에 따른 이웃농가로의 전염 등 어디서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난계대전염병의 만연이 심각하다.

본격적인 뉴캐슬병 근절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 양계인들과 관련 단체가 양계질병 방역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계장에 추백리나 가금티푸스에 걸린 종계를 그냥 둔 채 살모넬라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덤비는 것은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이에 대하여는 방역당국과 업계, 관련 단체,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다.

3. 질병 퇴치를 위하여 체질을 개선하자

난계대전염병 등 질병의 퇴치를 위한 양계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테면, 종계업계에서는 항상 청정 종계군 작성과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주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임!), 실용계 농장은 차단방역을 확고히 하면서 난계대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병아리 구입 계약서 작성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김재홍
(신임 조류질병과장)

■ 약력

- 197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미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 1981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가축위생연구소
- '94~'96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수의·축산·농약 연구조정 담당관
- '97~'98 미국농무부 농업연구청(ARS) 파견, 뉴캐슬병 방제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 '98~'00.8 수의과학건역원 해티전염병과 고위험도 질병연구실 연구관
- '01.2~'02.1 수의과학건역원 방역과장
- 현재 조류질병과장

계열화 사업 주체는 사육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방역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사육밀도가 높아지거나 대규모화 되면 필연적으로 질병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 계열화사업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방역 개념이 매우 희박하고 질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질병으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경제성이 좋아질 수가 없다. 인가되지 않은 부화장은 없어져야 한다. 뉴캐슬병에 걸린 닭은 닭도축장으로 출하하지 말아야 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임상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어느 개인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인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며, 법규 위반농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역활동과 홍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양계협회 등의 단체에서는 종계 청정화 등 방역사업의 실시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방역사업을 전개하고 회원들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농가에서는 우직할 정도로 방역원칙을 준수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가축방역지원본부나 농협에서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홍보와 함께 질병검사 등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질병검색, 현장점검 등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구호로만 거치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하나 씩 해결해 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양계**

< 조류질병과장 책임 소감 >

ⅢⅢⅢ 방역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ⅢⅢⅢ

'81년에 당시 가축위생연구소(후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개칭)에 입사하여 약 14년간 ND, IB, ILT, IBD, MG 등의 조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다 '94년에 양계질병 분야를 떠난지 햇수로 9년만에 조류질병과장으로 복귀하니 고향으로 돌아온 편안함 심정이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가끔티푸스의 만연 방지, 뉴캐슬병의 근절 과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등 거대한 숙제가 산적해 있고, 떠날 당시와 비교할 때 질병관리나 위생면에서 양계업계가 별로 발전한 것이 없어 보인다.

낙농업계나 양돈업계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까지 근절할 마당에 우리 양계업계도 분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방역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종계장에서 살모넬라 등의 난계대전염병 감염계를 색출해서 청정화 하지 않는 한 가금질병 방역과 생산성 향상은 백약이 무효다. 최근의 가끔티푸스 만연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보게 된다.

앞으로 양계업계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악성질병의 근절과 질병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단체, 업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